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광주형 일자리 ...

## 광주 해묵은 현안사업 본 궤도 올랐다

10년 넘게 이어온 난제 풀려  
지역발전 기대감 커져  
민간공원 수사 빠른 마무리를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해묵은 난제의 실태를 풀어가면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하나 둘씩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용설 시장 취임 이후 차례로 풀려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일부 현안 사업에 제동이 우려되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만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서진건설이 '공모지침대로 사업 이행 보증금을 일시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달 중 사업주체인 광주도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41만 7531㎡ 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 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선 4기부터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수 차례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었지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시민들의 찬반 여론이 갈려 17년간 제 자리를 맴돌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9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지난 2002년 기본계획 최초 승인 이후 재정부담·경제성·건설방식·노선 등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찬반 논쟁



황금빛 은행나무길 ... 가을이 가고 있어요 10일 오전 전남 남평면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에서 시민들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길을 거닐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을 '건설 찬반 공론화(지난해 8월)'로 마칩표 찍고,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이용설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곧바로 시작돼 11월 12일까지 숙의형 주민공론화를 통해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 생활 민주시의 실현과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지자체 협력-갈등 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발표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선 6기 때 시작된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민선 7기에 결실을 맺었다. 노사 간 불신과 민주노총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용설 시장이 직접 노조를 찾아가 설득하고 회사 측의 참여를 유도한 끝에 대한민국이 주목한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을 출범시켰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정 논란과 노동이사제 문제 등으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광주형 일자리' 산실이 될 공장 신축 공사 입찰자 선정이 공고 되는 등 사업이 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KTX 진입 중단으로 기능이 쇠퇴한 광주역과 이로 인한 광주역 주변 공동화 문제도 수 년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광주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송정역 역사 개발도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면서 수 년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KTX투자 선도지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광주역 개발 사업에 대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 시장이 장관과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쌓아온 행정적 리더십과 추진력, 혁신성 등을 취임 이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 등은 전남도와 전남지역 각 지자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 시장은 이달 중 김영록 전남 지사를 두 차례 비공식, 공식적으로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군공항-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돌파구를 찾기를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정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째 이어지면서 광주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정과 도시공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국장급 간부의 구속,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수 차례 검찰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각종 현안사업 등도 차질을 빚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정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수년째 광주시정의 발목을 잡아온 해묵은 현안사업들이 차례로 풀려가면서 각종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과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폭탄'이 터졌다"면서 "검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각종 의혹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저해와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골프 치는 전두환 광주법정 다시 세워야

치매 주장 재판 불출석  
멸절한 모습에 국민 분노

알츠하이머를 투병을 주장하며 5·18 관련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88)씨가 멸절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씨를 구속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전씨를 광주의 법정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출석을 거부해 온 전두환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쳤다"며 "이는 명백한 반법정모독이고 국민과 역사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구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19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책임자임이 명백하지만 여전히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법정을 모독하고 법치를 부정한 전두환을 즉각 구속시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함, 법치의 엄정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받고 있는 전씨는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이 영상에는 전

씨가 '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전씨가 지인들과 골프 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물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재판 출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전씨의 노골적인 '5·18 역사 지우기'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 광주시민의 분노감이 커지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씨는 본인의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을 늘어놓고, 5·18을 역사에서 지우려 한다"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무기력한 대응과 사법부의 좌우기 행태 등이 전씨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5·18 당시 실질적 최고 책임자는 전두환이었다. 전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 모두를 기만하고 있다. 사법부는 법의 엄중한 잣대로 전씨를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씨의 이 같은 행동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뉴스 유포로 이어져 독재 회귀를 바라는 보수층을 결집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4일 수능 한파 ... 광주·전남 비 또는 눈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광주·전남 지역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으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습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능 당일인 14일 아침 기온은 전남보다 2~7도가량 크게 낮겠다"고 10일 밝혔다.

14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 2~7도·최고기온 10~11도로 분포돼 춥겠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이 5~10도 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을 준비하는 등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자녀가 피우는 우리집 행복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축복받은 전남의 미래!

<b>신생아 양육비 지원</b>	▶ 신생아 출생시 태아당 30만원 지급 ※ 시군별 출산장려금 별도 지급
<b>다자녀 행복카드제</b>	▶ 막내가 만 13세 이하(태아 포함)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발급처 :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에서 발급 - 혜택 : 영화관, 학원업종, 서적, 농협 마트·주유소, 놀이공원 등 할인
<b>고위험 임신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b>	▶ 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 임신부 5대 질환 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120만원)
<b>공공산후 조리원 운영</b>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1호점(해남종합병원), 2호점(강진의료원) - 이용료(2주) : 일반인 1,540,000원, 감염자 462,000원 ※ 3호점(완도대성병원) : '19년 개원 예정
<b>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b>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b>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b>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의료비 지원(최대 15백만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지원(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약제·의료비)